

예수를 만난 죄인들

요한 7:53-8:11

by The Reverend Frances Taylor Gench

교회는 오랫동안 성적 부도덕의 이슈에 관하여 처음부터 늘 불안해 왔다. 오늘 본문이 그 적절한 예이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원래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이러한 이유에서 이 내용이 어떤 성경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거나 통째로 빠지기도 하였다).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의 원문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며, 사용된 단어나 문체나 신학으로 볼 때 누가복음의 성격에 가까우며, 요한복음의 이야기체의 흐름을 깨뜨린다(7장 52절부터 8장 12절까지를 건너 뛰어도 이상하지 않음). 후의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 곳에서 본문의 내용이 발견된다(요한복음 7:36, 52, 그리고 21:25 이후; 심지어 누가복음 21:38). 그러므로, 이 내용은 사실상 집을 잃어버린 스토리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또한 오래된 예수에 관한 구전 전통 - 그의 생애에서 믿을만한 여러 특징들을 갖춘 이야기 - 에 근거한 고대의 실제적 사건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왜 경전화 될 수 있는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떠도는 스토리가 되었는가? 십중팔구는 그 내용이 강제로 삭제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간음했던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수의 한가함은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을 것이고 그들 자신의 고된 속죄의 신앙관례를 위협하였을 것이다.¹ 더 나아가, 많은 해석가(고대 혹은 현대)들은 기독교 여성들이 본문에 담긴 “처벌되지 않는 죄”를 통하여 정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봐 걱정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의 중요성은 여러세기를 통하여 이 내용이 소중하게 읽혀지고 보존된다는 면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자세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 사실, 신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Raymond Brown)은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사실에 관하여 전혀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죄를 너그럽게 봐주는 예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자비 사이의 민감한 균형이 바로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이다.”³

그러나, 이름 없는 여인만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약속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다. 사실, 이 스토리가 전통적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관심의 초점을 여인과 성적인 죄에 두게끔 하고 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들을 모호하게 만든다. 성적인 죄를 지은 여인을 정죄하고 매도하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무리들 역시, 놀랄만큼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성육신된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변화된다.⁴ 그렇다면, 이 스토리에 나오는 양쪽의 중요성을 자세히 보기로 하자.

스토리 읽기

요한복음 7:53-8:11 까지의 극적 내용을 읽어 보시다. 해설자와 예수님과 여인의 역할을 분담하고, 모임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절들을 읽게 하라.

이것은 들을 뿐 아니라 볼 필요도 있는 스토리이므로 반원들을 원형으로 서게하고, 예수님과 여인을 중앙에 놓아 예수님께서 말로써 반응하신 것 뿐 아니라 무언으로 반응하신 것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끔 하라.

토의와 묵상을 위한 질문들

- *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당신의 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끌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질문들을 제기합니까?
- * 당신은 땅에 무언가를 쓰신 예수님의 알수 없는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고 생각 되는가?

풍족한 고찰: 분을 참기 위하여 낙서를 하시고 계셨을까? 고소자들의 죄들을 적고 계셨을까? 성경의 어느부분을 적고 계셨을까 (십계명; 예레미야 17:13; 혹은 출애굽기 23:1, 7 같은 부분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음)? 말 보다도 더 강한 행동, 즉 진정한 자유의 표현으로 하셨을까?

- * Canterbury 대주교인 로윈 윌리엄스 (Rowan Williams) 의 주장을 생각하며 당신의 반응을 나누어 보라.

여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땅에 무언가를 쓰신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주석가들은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놓는데, 한가지 분명해 보이는 의미는... 그가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금을 긋거나, 설명을 붙이거나, 여인이 누구이며 그 운명이 어떻게 될것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는 잠시 시간을,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시기를 거부하시는 까닭에 그들이 자신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좀 긴 시간을 가지신다. 마침내 고개를 드셨을 때, 거기에는 심판과 해방이 공존하였다.⁵

- *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대적 도전은 문자 그대로 군중들로 하여금 돌을 놓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강력하게 끄는가?

본문의 대화에서 두가지 사항을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정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성적인 죄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적인 죄가 다른 죄보다도 더 악한 죄라는 생각을 갖지도 않으신다. 두번째로, 구별되지 않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 하시기 보다는 개인들을 향하여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진정으로 그들은 정죄할 만한 자리에 있는가를 주시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명예롭게도 아무도 돌을 던지라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메모: 아무도 스스로에 대한 정죄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⁶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실들을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놓치기 쉬운데, 본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던지라는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나아올 때는 구별되지 않는 군중이었지만, 떠날때는 개인으로 떠나게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9 절) - 이들은

말씀과의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새로운 자각으로 돌을 버리고 변화된 개인들이다.

- * 군중들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흩어진다. 당신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는가?
- * 주석가 Gail O’Day 가 관찰한 것 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여인을 “죄에 관한 말씀을 받을만한 신학적으로 동일한 인간”으로 대한다.⁷ 더 나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인이 동일하게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유 받는다.”⁸ 당신은 이러한 양면성을 나타내는 본문에 붙여질 만한 새로운 제목을 생각할 수 있는가?
- * 교회 역사가 로버타 반디(Roberta Bondi)은 판단적인 자세(Judgmentalism)는 크리스찬의 삶의 근본적인 고투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종종 판단 받는 사람도 파괴한다:

작게는 판단적 자세는 결혼생활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한다. 크게보면 이것은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가난한 자의 외면과 국가적인 독선을 불러 일으키는 연료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랑의 위반인 판단적인 자세는 서로가 짓는 다른 죄들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⁹

수도원의 저자들의 영향을 받은 반디(Bondi)는 또한 말하기를: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볼 수 있는 덕을 계발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판단적인 자세로 생긴 상처들을 치료하는 주된 원천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무서운 일을 저지르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원의 교사들은 서로 사랑하는 면에서 인간의 실패는 우리를 같은 배에 탄 신세로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인정하지 않는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¹⁰

이러한 관찰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을 위의 것들과 동의하는가? 한다면 왜, 안한다면 왜 안하는가?

- * 당신은 왜 우리가 몸 담고있는 교회와 사회에서 성적인 죄가 다른 어느것 보다도 더 가혹하게 심판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 *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성적 문제에 관한 토론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것을 사용하는 예를 본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들었는가? 왜 이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고 생각하는가?
- * 오늘 본문이 어떠한 통찰력을 제공하는가? 오늘 교회가 겪고있는 갈등을 생각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목상에 어떠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오늘 토의를 통하여 어떠한 새로운 통찰력이 떠올랐는가?

¹이 사항은 Gail O'Day 에 의하여 설득력있게 논의 되어졌다, "John 7:53-8:11: A Study in Misreading,"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992): 631-40; see also Raymond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NY: Doubleday, 1966), p. 335.

²성 어거스틴 (ca. 430)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이나 참된 믿음의 적이 되는 자들이 그들의 아내들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것에 위협을 느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 마치 죄를 허용하는 것 처럼 들릴 수 있는 간음한 여인에게 내리는 주의 자비의 내용을 원문에서 삭제 하였다." ("Adulterous Marriage," [2.7], trans. Charles T. Huegelmeier, in *Augustine's Treaties on Marriage and Other Subjects*, trans Charles T. Wilcox [and other]; ed. Roy J. Deferrari [New York: Fathers of the the Church, 1955], p. 107).

³ Brown, pp. 336-37.

⁴ O'Day 는 6 절 하반부터 7 절까지, 그리고 8-11 까지 얼마나 비슷한가를 강조한다: 각각의 경우,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6 절, 8 절); 예수님께서서 상대와 대화를 나누시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7 절, 10 절);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7 절, 11 절) ("A Study in Misreading," p. 633).

⁵ Rowan Williams, *Writing in the Dust: After September 11* (Grand Rapids: Eerdmans, 2002), p. 78.

⁶ Patricia Klindienst Joplin, "Intolerable Language: Jesus and the Woman Taken in Adultery," *Shadow of Spirit: Postmodernism and Religion*, Philippa Berry and Andrew Wernick, eds. (New York: Routledge, 1992), p. 233.

⁷ O'Day, "The Gospel of John,"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ume IX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p. 630.

⁸ O'Day, "A Study in Misleading," p. 630.

⁹ Roberta C. Bondi, *To Pray and to Love: Conversation on Prayer with the Early Chur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p. 109. Italics mine.

¹⁰ Bondi, p. 112. Italics mine.

오늘 성경공부의 서문은 원래 2000-2001 에 미국장로교에서 발행된 Horizon 성경공부 "여성과 말씀: 요한복음 공부"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허락을 받고 복사하였다. 미국장로교 여성 (Presbyterian Women) 으로부터 구독이나 주문을 하실 분은 전화 (800) 524-2612 하시기 바랍니다.